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0 | 8 | 제129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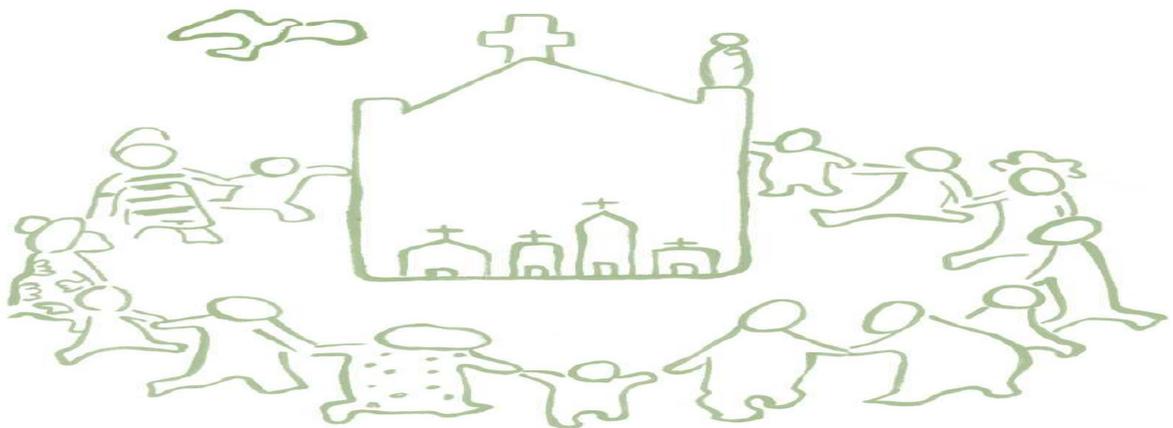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7.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19주일(8월 9일)  
물 위를 걸으시다  
(마태 14,22-33)



**베드로와 예수**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마태 14,31-32)

캄캄한 밤의 풍량은 자연의 위협, 악의 세력,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분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나를 세상 안에 서있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번 "나는 믿나이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22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23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24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25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2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27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8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30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31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32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33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마태 14,26 L)

주님을 믿고 따르는 충실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일상 생활로 돌아 왔을 때,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고 세상의 셈법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4,27 L)

일상 생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막막할 때, 기도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 복음 나누기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을 품었느냐?"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듣게 되니 가뜩이나 믿음이 약한 우리는 오죽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12사도 중에 늘 앞장서 가시다가 칭찬도 들으시고 꾸지람도 들으십니다. 자주 속절없이 넘어지는 약함도 그대로 보여 지지만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 사도의 자신을 불러주신 스승을 향한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는 한마디 말씀에 그물을 그대로 두고 따라 나선 베드로 사도는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약한 믿음 때문에 물에 빠져드는 낭패를 보았을 때, 지체없이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습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넘어 스승께 의탁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품이 훌륭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름' 으로 해서 스승 예수님을 닮아감을 봅니다. 온 세상이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충실히 생명의 길을 따라 갈 것을 다짐해 봅시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번 "나는 믿나이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 20주일 (8월 16일)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마태 15,21-28)



한 여인의 믿음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마태 15,28)

복음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항구하게 어떠한 처지에서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그분께 희망을 둔다면 주님은 크나큰 사랑과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76번 "믿음 소망 사랑"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21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22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23 예수님께서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24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25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26 예수님께서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마태 15,25)

주변의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마태 15, 28ㄱ)

믿음으로 인해 위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위안이었습니까?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혼란과 무기력, 불안과 다급함이 덮쳐 올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그분께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식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마귀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하곤 합니다. 불에 뛰어 들기도 하고 너무 사나워서 마을에 같이 살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따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 마귀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그 딸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성가시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눈총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라면 딸을 해방시켜 줄 것을 굳게 믿고 작심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딸을 향한 애절한 마음과 사랑이 어머니를 움직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서는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이웃들로부터 떼어 놓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간절히 청한다면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76번 "믿음 소망 사랑"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함께하는 소공동체

### 한 알의 밀알이 되어

#### - 거제본당 서원구역장 강은호 안젤라 -

85년의 긴 역사를 지닌 거제 본당은 거제 계룡산 기슭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본당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성모성심관" 을 건립하여 모든 모임이 그 곳에서 진행되어 신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본당은 15구역 18개 소공동체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 중 서원구역은 몇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많아 낮에 소공동체 모임을 하였으나 어르신들이 점점 더 연로해 지시면서 구역 모임이 침체되자 서원구역의 활성화하기 위해 소공동체모임 시간을 저녁시간으로 옮겨 직장인 신자들도 모임에 참석하여 가족같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서로의 친근감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기를 3년, 예전에는 30대 ~ 70대의 나이로, 3 ~ 4명이 모임을 했지만, 지금은 13명이 소공동체 모임을 합니다. 때로는 앉을 자리가 부족하지만 많은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니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신앙 생활을 해 오신 신자분들을 주축으로 신앙생활을 나누어가며 구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로 인하여 소공동체모임이 일시 중단되고 있지만 전화로 형제 자매들의 안부를 나누며 '코로나19' 가 하루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원 소공동체는 쉬는교우 찾아보기와 어려운 이웃 돌봄, 본당 교우들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며 기쁘게 기도와 봉사를 할 것입니다.

저희 서원구역의 이러한 노력이 거제본당의 활성화에 작은 밀알이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 5. 선교활동 지침

(1) 같은 사람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자주 방문하고 만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방문을 싫어하더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자주 찾아 주면 끌리기도 합니다. 성급하게 결실을 맺으려 하지 말고 여유와 인내를 갖고 임합니다.

(2) 둘이 짝지어 가는 것이 서로서로 격려하고 힘이 됩니다. 혼자 가면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지만 둘이 가면 주거니 받거니 서로 협력하여 대화를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반소공동체와 선교단체 모임에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4) 가정에 들어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자기를 간단히 소개하고 방문 목적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5) 몇 번 방문하여 가까워질 때에 대화를 합니다. 대화 중에 어려움이나 고통을 호소해 오면 잘 듣고 즉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소공동체 교육 기초단계』(서울대교구사목국,통합사목연구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임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